



기획시리즈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공충  
과장

## 7, 8월의 해충 (II X)

### - 느티나무 외줄진딧물 -

**이해충** 은 앞에 흑을 만들고 그속에서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는 벌레로 나무를 죽이는 일은 없으나 피해가 심할 때는 경관을 저해시킨다. 피해는 임내에도 발생하나 주로 가로수, 정원수에 많이 발생한다.

○ **분포** : 한국, 일본

○ **가해수종** : 느티나무(기주 식물), 대나무류(중간기주)

○ **가해상태** : 잎 표면에 곤봉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녹색 벌레혹을 만들고 그속에서 수액을 빨아 먹는다. 벌레가 탈출하면 벌레혹은 딱딱해지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그대로 앞에 붙어있어 피해가 심하면 경관을 저해시킨다.

○ **형태** : 간모(幹母)는 소형 암녹색(暗綠色)으로 백색의 밀납(蜜蠟)이 덮여있다. 머리는 작고, 가슴과 배는 볼록하며 등에는 막질(膜質)의 가늘고 긴 털이 있다.

더듬이(觸角)는 짧고 4마디로 되어있다. 유시형(有翅形)은 머



▲느티나무 외줄진딧물의 피해 가지



▲느티나무외줄진딧물 피해 잎

리와 가슴이 흑색(黑色)이고 배는 암색(暗色)이며 몸은 타원형이다. 더듬이는 짧고 6마디이다.

○ **생활사** : 수피틈에서 알로 월동한다. 알은 4월중순에 부화하며 부화약충은 잎뒷면에 기생하

며 즙액을 흡즙하면 이때 자극에 의해 잎 뒷면이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잎 표면에 곤봉형의 벌레집이 형성된다. 벌레집은 커지기 시작하여 약 20일후에는 길이가 5~10mm, 폭이 5~6mm인 큰 벌레집이 되고 암컷성충은 약충을 낳기 시작한다.

5월 하순~6월 상순 벌레집에 탈출공이 생기면 유시태생(有翅胎生)암컷성충이 밖으로 나와 중간기주인 대나무류로 이주하며 앞에 약충을 낳으면 즉시 땅으로 떨어져 중간기주의 뿌리에서 여름을 지낸후 10월 중하순에 유시충이 생겨 느티나무로 돌아간다.

유시태생 암컷성충이 낳은 암컷성충은 교미후 체내에 알을 가진상태로 수피틈에서 죽으며 겨울에 비바람에 의해 벌레의 몸이 파열하여 알이 밖으로 노출된다.

○ **방제법** : 피해가 경미할때는 나무생장에 큰지장이 없으므로 방제할 필요가 없으나 매년 피해가 심할 때는 새잎이 나오는 4월에 진딧물약제를 살포한다.